

# “정상회담 논의할 단계 아니다”

■ 이해찬 前총리 특사실 논란속 방북

김정일 면담·정상회담 타진 관심  
한나라 “대선위한 기획방북” 반발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7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정부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각종 논란 속에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7일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방북했다.

이 전 총리는 정의용, 이화용 열린우리당 의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4일간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경험 일정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전 총리의 방북 입장=이날 선양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방북 기간 경험 문제를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남북 간의 교류협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화를 나누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로 방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으로서) 내 일을 보러 가는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특히 노 대통령의 친서 휴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성사 가능성이 있는냐”는 물음에는 “내가 북에 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에도 이 전 총리는 “6자회담 이후 1단계 초기 이행계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의 윤곽을 잡고, 성공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된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직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 반응=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 마지막과 참여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은 이날 “이 전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안 만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나도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의사를 전달할 위치에 있다”며 “이 전 총리가 특사가 아니라도 중요한 의사전달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사람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만나기로 약속할 수 있느냐”며 “북측이 받아들이기에 대통령 특보 자격과 비공식 특사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회정 역할’ 논란=이 전 총리의 방북에 노 대통령의 측근 안회정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안씨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에서 북한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 라인과 접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안회정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안씨가 북한 고위층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반응=한나라당은 이 전 총리의 방북을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위한 대선 전략’으로 규정, 강력 반발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 전 총리 방북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정상회담 사전정지 작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번 이 전 총리의 방북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경계하기보다는 이 전 총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 올 것을 촉구해야 할 것”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오른쪽에서 두번째) 서구를 위원장이 장상(왼쪽에서 세번째) 대표 등과 손을 잡고 민세를 부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주 당권주자들 유세대결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김영진위원장 선출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영진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신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주시당 소속 대의원들은 광주지역 7명 지역위원장 등에 의해 합의 추대된 김 지역위원장의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오는 4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도전하는 장상 현 대표를 비롯한 김경재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박상천 전 대표, 심재권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 축사를 하며 사실상의 유세 대결을 펼쳤다.

장상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의 본고장으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폐쇄적 정당 아닌 민주적 정당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정당 아닌 미래지향 정당으로, 50년 전통만을 자랑하는 정당이 아니라 21세기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천 전 대표는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양대정당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중도개혁 통합을 해야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은 침몰하는 난파선에 민주당이 탑승하는 것으로,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전 의원은 “비참한 지역당인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자생력을 보이지 않으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는 조순형 의원과 한화갑 전 대표 두 명 중 한 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고 민주당 밖의 국민후보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변화·혁신·개혁·세대교체를 이끌고 전국 정당으로 이끌 수 있는 ‘주몽’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주도 통합신당 추진에 박차 가할 것”

김영진 신임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보름 모두 탈락시키며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결국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구청장 후보 모두를 당선시켜주는 등 민주당에 애정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무조건 지지자가 아니고 또

“오는 15일 이후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3차 탈당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등 통합신당 작업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영진 <사진> 전 의원은 “광주시민의 열망하는 통합신당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민주당이(계약관계의) ‘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당위원장 합의를 추대와 관련 “지역위원장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 것과 4선을 지낸 중앙정치 경험이 저를 시당위원장으로 이끌었다”며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양보의 결단을 내린 유종필 전 시당위원장과 최경주 부구를 지역위원장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민이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

다시 지지자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4·25 재보선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합리적으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16일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서 2003년 2월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장관에 임명됐으나 새만금사업 공사 중단에 항의 표시로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대통령 오늘 오후 개헌 관련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예정된 정부 헌법개정추진위원회의 개헌안 시안 발표에 즈음해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회견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주제로 특별담화 또는 회견을 갖는 것은 지난 1월9일 개헌 제안 대국민특별담화, 1월11일 개헌 제안 취지 설명 기자회견담화 등에 이어 세번째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신년회견, 인터넷 매체 회견 등을 통해 개헌 취지를 설명했었다.

개헌추진지원단은 8일 오전 10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할 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 단일안을 만들어 이날 하순에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윤 수석은 “개헌안 발의 시점은 유동적이긴 한데 지금 4월 임시국회가 3월말로 당겨지는 분위기인 만큼 일단은 3월말에서 4월 초순 사이로 발의 시점을 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발의 시점이 결정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개헌 홍보 활동과 관련, “지방단위별로 토론회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별로도 공청회 등이 진행중”이라며 “개헌안 발의 이후에는 사실상 청와대 참모들의 개헌안 홍보활동은 법 위반이므로 하기가 힘든 만큼 그 전까지 활동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리 한덕수·비서실장 문재인

내일 발표·김세욱 경호실장 사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후임자를 지명해 국회 인준 동의를 요청하고 이병만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자도 발표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을 모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총리는 한미 FTA 특보를 맡고 있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김세욱 청와대 경호실장 후임자는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세계가 격찬한 불멸의 감동 신화!

백희나, 김연경, 심정주, 송영민, 강성태, 우경희, 박상민, 박유기, 사설, 최고의 캐스팅



2007. 3. 9 (금) - 11 (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5:00 / 19:00 / 21:00

문의: 020-0540, 1588-0755